

<2020년 12월 6일 주일말씀>

감사와 영광

본 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요한계시록 14장 7절

시편 24편 10절, 100편 1-5절

<서론>

할렐루야

오늘도 이시대 성약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속에 찬란히 빛나는
귀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는 풀어주리라.’ 는 말씀을 주셨죠.

사람끼리도 얹힌 마음, 매인 심정을 풀어야 한다고 하였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할 것을 회개하면서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의지함으로 하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묶
인것들을 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풀어주리라’ 이 말씀은 지난 한 주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 주님은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앞으로도 계속해
서 저희의 영육에 묶이고 매인일들을 풀어주신다 하셨으니 저희는
오직 삼위와 주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따라 행하며

가야되겠습니다.

- 자 이제 2020년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또 한 살씩 드셨습니다.^^

1년 동안 우리를 지켜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며 사랑해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축복하여 각종 것들을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감사하며 저희가 진실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 물론, 그때마다 삼위를 사랑하고

삼위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았지만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은 특히 영원하신 성삼위께
감사와 사랑과 영광을 돌리며 2020년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할 일들>을 빼놓지 않고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모임도 못 하고 제대로 활동도 못 하고 산 것 같지만,
섭리사는 <온라인 방송>으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움츠리기도 했지만 <각자 할 일들>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관리>도 했습니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섭리의 나라들이
이전처럼 전도하여 생명들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올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각종 고통을 겪었고,
전 세계는 <코로나>와 <각종 재난>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 삼위는 우리를 더 축복해 주셔서
<더 좋은 새 것>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자연성전과 주변도 개발할 것들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도 다 주셨고,
부족함 없이 사랑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며
기쁨으로 즐겁게 우리와 함께하며 행해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약수>로 도우시고, <주의 기도>로 도우시고,
<각자 개인이 기도하게 함>으로 도우시고,
<각종으로 관리하게 함>으로 도우시며 함께 행해 주셨습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한 해 동안 <표적>과 <축복>으로
주를 통해 섭리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은
영원하신 성삼위께 주와 함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 말씀 듣기, 말씀 전하기, 외치기,
찬양하며 기쁨으로 삼위께 영광 돌리기, 기도하기,
생활 가운데 삼위를 사랑하며 섬기기!
→ 이것은 삼위를 사랑하며 삼위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사명>이며 <소명>입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주신 것들>을 깨닫고, 진실로 감사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상황과 여건을 들어서 행하지 않으셨으면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마다 이것을 진실로 깨닫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사연들을 말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 섭리사는 지금까지 전체가 같이 <추수감사절>을 보내지 않고, 개인이 나름대로 감사하며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을 최고의 절정인 10월 마지막 주>를

[섭리사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그 주 주일>을

[감사와 영광의 주일]로 정해서 하늘앞에 예배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양과 공기와 비와 바람과 기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로 인하여 농사지은 것을 거둬들여 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 곡식 농사뿐 아니라 모두 삶 속에서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직장에 다니고 각종 일을 하면서 생활 농사,인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와 비와 바

람과 적절한 기후를 주시며 우리가 각종으로 살도록 여건을 주셨습니다.

고로 추수감사절은 우리 모두의 삶의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꼭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간들이 수고하여 사용하면서 먹고 살라고 수억만 가지를 창조해서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포도, 수박, 귤.. 각종의 음식들.. 다만 인간이 수고하여 얻을 뿐입니다. 1차 창조는 오직 전능자 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로 사람들은 그때마다 수고하고 거두면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정 살아야 됩니다.

또한 그 터전 위에 사람의 ‘육’을 창조하시고 영원불변할 수 있는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제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던 자들은 말씀을 듣고 제대로 깨닫고 매일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혹은 재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혹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추수 감사에는 육적인 추수 감사도 있지만, 영적인 추수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 농사를 지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햇빛이 되어 주시고, 공기가 되어 주시고, 은혜의 비가 되어 주시고, 성령의 따뜻한 기온이 되어 주시고, 의의 옷을 심령과 영혼에 입게 해

주시고, 신령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고로 우리 육과 영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먹고 입고 그 보호를 받아 사망에서 죽지 않고, 영적 신앙 농사가 풍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육과 영이 구원받도록 1년 동안 말씀으로 먹여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하시고, 환난과 고통에서 지켜 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살피 주셨습니다.

고로 육도 영도 농사가 잘되어 하늘 창고 생명권으로 거둬들여 우리 육과 영이 살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못 하고 지나갔으니, <다음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 감사와 영광의 주일]로 정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본론> 중요 : 설교자가 준비해서 전해야 할 부분

- <모르는 상태에서 삼위께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알고 깨닫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더 큼니다.
-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이었습니다.
1차, 2차 감염을 넘어서 3차로 이어지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섭리사는 하나님과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지켜 주셔서
전 세계로 뻗어 있는 수많은 섭리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했어도 삼위가 지켜 주지 않으셨다면

섭리인들도 여기저기에서 감염됐을 것입니다.

저희 해남은 특히 감사해야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확진자 1명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거진 10개월간 단 하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과 성령님.성자주님께 정말 감사해야되겠습니다.

유럽의 상황을 보시고, 선생님께서 최근 말씀하시길..

미국은 대단한 나라다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대단한 나라.

거의 지금 10만~ 20만명씩 걸리고 있잖아요.

인구 비율로 볼 때 우리나라도 1만5천명씩은 걸려야 정상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가 계시고, 섭리사 사랑하는 신부들이 있는 곳이기엔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알고 저희가 진정 감사해야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도 말씀하시길. 너희가 잘하면 빨리 끝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지구촌에 어디를 쳐다보고 계시겠습니까?.. 바로 저희 섭리사 밖에 없다고 생각하니다.

저희가 지구촌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영광돌리고 사랑으로 행한다면 저희 귀여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분명 더 좋게 이끌어주실거라 생각합니다.

각종 사연들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진정 올한해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하셨습니다.

- <코로나로 인한 펜데믹>으로 인해

학업과 생업에 영향을 받아 힘들어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성령께서 붙잡고 계시니
신앙이 쓰러지지 않고 모두 서 있음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다시 얻게 되고,
감사함으로 더 좋은 날을 보게 됩니다.

- 코로나 기간에 여기저기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쓰러졌지만,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기도하며 자기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고 관리하여 생명들이 살아났습니다.

혼자이면, 못 합니다.

하나님과 성령께서 주와 함께 전적으로 붙들었기에 살았습니다!

- 올해는 하나님과 성령께서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선생님은 “정~말 기적으로 얻었다.”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이번 코로나 기간에도 정말 많은것들을 행해놓고 계시
는데요.

성경에도 주께서 먼저 가서 천국을 예비해 놓는다 하셨잖아요.

천국 뿐만 아니라.. 주는 이 땅의 지상천국에서 저희를 위해 많은 것
들을 예비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돋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저희 땅이 되리라 하셨는
데요. 월명동에 해뜨는 곳 인대산에서부터 대둔산까지 저희 땅이 계

속해서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샘께서 행하신 일들이 정말 많지만 올해 행하신 핵심적인 것들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1. 월명동에서 앞섬골로 올라오는 2차선 길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원래 월명동 올라오는 길 있잖아요. 진산삼거리에서 꼬불 꼬불 한참을 선교센터쪽으로 올라오는데.. 이 앞섬골은 월명동 성황당 쪽 아시죠? 예전 2층 문화센터 있었던곳.. 그 쪽으로 넘어가는 반대길로 진산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월명동을 오기가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2. 다릿골을 개발하시면서, 길을 닦고 여러 바위와 소나무 작품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주님은 실제 순간이동의 표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3. 월명동 작품 나무 중에 여러 걸작 뿌리 술들을 발견했고 개발했습니다.

4. 선녀와 나무꾼 캠핑장을 개발해서 500m 선녀탕 계곡을 닦았고 걸작 술과 절경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인대산쪽인데요. 정말 멋있습니다. 완전 계곡이 쪽 뻗어있는데요. 나중에 가면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5. 100점 소나무들과 주님을 상징하는 대 걸작술이 월명동에 들어오는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보급 3손가락 안에

드는 소나무가 들어왔죠. 이걸 가서 정말 봐야합니다.

6. 올해 하반기부터 <진, 선, 미>의 지역을 얻게 되었는데요,
진은 옥계동 계곡 / 선은 일양골 골짜기 / 미는 시대 요단강이 흐르는 소나무 펜션입니다.

진, 선, 미는 축복의 때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지역인데
요, 너무나 큰 보화들이 숨겨져 있어서 선생님께서 매일 이 지역에
가셔서 작업하시고 계신데 지금 엄청난 역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선생님께서 Vlog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복주머니 바위, 거북이 바위, 독수리 바위, 용바위등등.. 아직 다 보
여주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늘의 역사에 또 저희는 감탄,감격,감사,
놀랄일만 남아있습니다.^^

7. 월명수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또 저희는 코로나 기간에 주께서 직접 월명수를 각 지역에 보내주셔서
더 많은 시대의 성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은 정말 섭리사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얻기까지 기적같이 하나님이 얻게 해주셨으니..
여러분이 나중에 사연을 듣게 되면 정말 놀라고 감사할것입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때가 때이니만큼 모임 수가 없어서
일일이 다 보여 주면서 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분적으로라도 보여 주면서,

〈하나님과 성령님이 행하신 기적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볼 때마다 감사와 영광뿐이다.” 하시며,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주시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신 사연을 이야기하며
역사에 남기라고 주셨다.

아직 모두 사연을 몰라도 섭리사 전체를 위해 주신 것이다.”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꼭 아셔야 할것이 섭리사 주신 모든 것들은 바로 저희 사랑하는 섭리사 여러분들.. 신부들과 함께 누리고 쓰고자 주신것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감사해야되겠습니다.

〈머리 되신 주〉가 먼저 깨닫고 삼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니,
〈지체가 되는 우리들〉도 주와 같이 삼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자기 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사할 일들〉을 깨닫고
삼위께 진정 영광 돌리는 12월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기간동안 하나님께서 주신것들이 영육으로 분명 있죠?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기간에 스스로 조심하면서 사람도 잘 못만나는 상황에서 생명들을 결실하지 못할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해남상황에 맞게 생명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세현이를 붙여주면서 말씀도 전해주고 함께 운동도 하고 했었는데요.

다른 때 같았으면 세현이를 여건상 많이 만나지 않았을것인데..

코로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되면서..

상황여건을 성령께서 주께서 이끌어주셨습니다.

세현이도 하나님께서는

이때 말씀을 배우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잡아주셨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참여하며 수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린 나이일수도 있지만, 말씀을 배우고 이제 주를 알았기에 하늘보시기에는 어리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시고자 했는데 몸이 좀 안좋으셔서 처소가운데서 계신 우리 이창호 아버님도 원래 불교에 영향을 많이 받으셨고,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인생 해그늘에 하나님을 믿고 시대 보낸 사명자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기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생명들을 결실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간증하자면.. 여러분

저 1,000만원에 당첨되었습니다. 올해 제게 하나님이 주신것이기에 오늘 감사영광주간에 짧게라도 증거해야겠더라구요.. 돈 얘기를 하니 여러분 집중이 되어지네요..^^..

제가 기본 소득이 많이 없다보니 차상위계층이었는데 올해부터 정부에서 기준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청년저축이라는 복지정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10만원을 저금하면 30만원을 정부에서 매칭해주는 그래서 3년간 저금하게 되면 1,080만원을 주는 대박! 복지정책에 당첨되게

되었습니다.^^

해남에서 딱 3명만 되었다 합니다.할렐루야

제가 막 돈을 벌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성령님,주를 믿고 사랑하며 그의 일을 부족하지만 해나가다보니..

저의 영육의 모든 것을 늘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축복이 물질축복입니다.

이외에도 여러분의 삶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주신것들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을 한해를 모두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각종으로 감사영광이 차고넘치는 저희 해남 한마음교회가 되길 진정 바랍니다.

<결론>

-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께 가까이 가서 사랑받으며,
더 좋은 휴거를 이루며 살게 됩니다!

- <감사>를 잊으면, 거만하게 됩니다.

<감사>를 잊으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기본’ 으로만 대해 줍니다.

- <감사와 영광의 삶>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삶’ 입니다.

<감사와 영광의 삶>은 ‘앞날의 축복을 받게 하는 삶’ 입니다.

<감사와 영광의 삶>은 ‘자기 육도 영도 잘되게 하는 삶’ 입니다.

- <감사와 영광의 삶>은

‘이 시대 하나님의 신부들이 지켜야 할 제1의 법’이며,

‘절대 해야 될 책임’ 이자 ‘사명’ 입니다. 믿습니까?

- 삼위께 ‘감사와 영광’ 을 돌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 ‘불평불만’ 이 들어오게 되고
그 자리에 ‘사탄과 마귀, 악령자들의 주관’ 이 들어오게 됩니다.

- <감사와 영광>은

‘다음 이상세계의 새 문을 여는 표적’ 을 일으킵니다!

- 올해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영광 돌리는 주간>에 선생님은
앞장서서 섭리사 전체가 삼위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까지 했습니다.

보름 동안 휴거기념관 본당을 꽉꽉 채우게 하고,
모든 작고 큰 부서들이 삼위께 영광 돌리게 하고,
이 모든 장면을 화면에 담아 모두 생방송으로 보게 했습니다.

삼위께 영광 돌리는 데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조은목사님도 이때 처음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잘 모르셨대
요. 그런데 지나고보니 “역시 주가 행하신 것이 옳구나. 주가 행하

신 것은 언제나 맞다 하시며 깨닫게 되셨대요.”

바로 <영광 주간>이 끝나고 1월 말부터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고 가는 길이 막혔고,
이후 전 세계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섭리사는 <3.16 휴거기념일>까지 ‘온라인’ 으로 드렸고,
전체가 1년이 다 되도록 대면으로는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적당히 했으면,
1년 내내 삼위께 제대로 영광도 못 돌리고 한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니
하나님과 성령님은 1년 동안 섭리사를 지켜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지켜 주셨고,
올해 각종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 정말 엄청난 일이다!!) 아멘~!!

- <올해의 시작>과 같이 <올해의 마지막>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마무리합니다.

이로 인해 내년 2021년 한 해도 축복해 주십니다!

모두 깨닫고,
마지막 12월은 삼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나머지는 주님께서 새벽과 수요일에 더 말씀해 주십니다.